

## 여유와 풍요로움 그리고 따뜻한 마음

인재환

동서해운(주) 부장

업계에 몸 담은지도 벌써 15년이 되는 것 같다.

LINE에서 근무시절엔 포워더하면 별로 근무하고 싶지 않은 직업이었다.

특히나 80년대 후반부터 많은 포워더업체가 생겨나며 LINE과 포워더, 포워더와 포워더의 영역없는 전쟁이 치열했다. 어느해에는 무역회사 입구에 “포워더업체 방문사절”이란 문구도 화제 거리로 등장한 적이 있었다.

80~90년대를 치르며 포워더업체의 숫적인 증가와 더불어 물량 면에서도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고 많은 무역회사들도 포워더에 대한 인식이 시대흐름과 함께 좋아지며 이용도도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나 DOOR TO DOOR 시대에 접어들며 복합운송에 대한 새로운 물류 흐름은 포워더의 위상을 자연스럽게 물류의 주체로써 올려놓았다.

그러나 우리업체의 현실은 세계화의 흐름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INTERNET의 등장과 함께 모든 정보 노출, 영세성으로 인한 네트워크 및 재무건전성 취약, 물류 전문가양성 취약, 외국과 달리 통관 등 통합서비스에 문제점, 물량대비 포워더 숫자의 과다로 지나친 덤핑 등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시대의 어쩔수 없는 부분이나 국가의 제도적인 부분, 우리나라 국민성에 기인하는 문제점으로 축약된다.

무역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물류비가 상대적으로 선진국 보다 높는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한 포워더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바람직한 포워더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은 무역업체와 우리업체가 공동으로 생각해 보고 싶다.

첫째. 통합 물류 구현 위해 법적제도 보완 시급

둘째. 국제화시대에 건설한 재무구조 건전화 유도

셋째. 양성기관을 통한 물류 전문가 양성

넷째. ON/OFF BUSINESS의 균형적 발전유도

다섯째. 자격강화를 통해 FORWARDER 적정 숫자유지

상기와 같은 방향으로 나간다면 다소 미래 불확실한 현실에서 물류 부분에서 주도적 위치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본다.

업체에도 미래에 대한 투철한 자기경영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이 많아 무역업체와 더불어 세계 교역의 주역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과, 또한 21세기 물류업체들의 주역으로 진정한 여유 풍요로움을 향유하되 업체 서로간에 따뜻한 마음이 흐르는 진정한 포워더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